

이것을 회개하고 덩케르크의 교훈으로 역병을 이겨 내자

성경말씀: 온3:1-10

지난 몇 주 동안 우한 폐렴의 공포 전 세계 엄습, 두 주 전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질병 발생, 확진자가 3500명을 넘었다. 이대로 가면 10000명을 넘어서고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경고, 한국인 입국 금지 71개 국, 주식 폭락, 환율 급등, 문재인 탄핵 135만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정부는 이번 두 주가 최대 고비, 전국의 많은 교회들, 모든 천주교 예배 중단하고 시책에 협조 요즘 목사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 지금까지 설교 주제로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우한 폐렴 사태 이후로 주일 설교하는 것 큰 부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복 받아라’,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지난 주 <역병의 공포 앞에서 교회와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기독교에 달렸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 주신 국가, 그런데 특히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언제나 종교 지도자들의 반역과 부패가 국가 패망의 1순위, 성도들 회개

오늘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리려고 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한다. 오늘은 3.1절 101주년 되는 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선조들이 분투하였다. 이들의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기독교(목사)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올바른 것을 전해야 한다.

< >, 지금부터 2800년 전 아시리아의 니스웨 왕의 회개, 지금부터 80년 전 영국의 조지 6세의 회개와 금식 기도

니스웨의 멸망 선포와 니스웨의 회개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대언서이다.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 사람들 요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고래 이야기, 거대 도시 니스웨 이야기, 불순종하는 요나 이야기, 그러나 이것들이 핵심이 아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이 무려 42번(하나님 16, 주 26), 하나님의 뜻과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핵심 주제이다.

요나서는 구약 시대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유일한 책

아밋대의 아들로 알려진 요나(온1:1), 하나님의 명령: 니스웨로 가서 사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외쳐라(2). 니스웨는 그 당시 가장 강성한 대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 이스라엘에서 1,000km 떨어진 곳

홍수 이후 니르루이 세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고대 도시(창 10:10-12). 바그다드 북쪽 350km 지점 티그리스 강 연안에 위치했다. BC 12세기경부터 아시리아의 주요 도시가 되었고, BC 8세기경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아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후에는 이집트까지 정복하여 인근에서 니스웨와 견줄 만한 도시는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정치, 종교, 문화를 총망라하는 26,000여 개의 서판은 당시 아시리아(니스웨)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요나 당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2만 명(4:11). 아마도 4-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거대 도시

심판의 원인: 나훔 2장 14절: 우상숭배, 3:1, 3:4

요나는 불순종, 니스웨가 아니라 반대쪽 다시스(스페인), 하나님께서 거센 풍랑을 보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 멸하려 하심, 결국 요나의 말에 따라 그를 바다로 내던지니 바다가 조용하게 됨,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즉 고래를 준비해서 그를 삼켰다가 토해내게 함, 그는 죽었다가 부활함, 부활의 표적,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1-2), 요나의 선포(4)

백성의 반응(5), 왕의 반응(9), 칙령(7-9),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심(10).

(*) 우리 대한민국이 우한 폐렴의 역병에서 벗어나는 공식이 이 안에 있다.

왕과 백성이 1. 하나님을 믿었다(5). 그리고 회개하였다(5-6). 그리고 사태의 심각함을 알고 금식을 선포하였다(7).

성경의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 교만과 우상 숭배, 가장 좋아하시는 것 회개와 믿음
부모 자식 관계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마9:13), 나는 죄인...

사도 바울이 전한 것(행20:21)

그러므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해야 할 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왕과 백성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멸하시려던 계획을 접고 그들을 용서하신다. 나는 목사로서 지금의 비상시국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국가적 재앙 국가적 회개

구약 시대 대언자들,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이 내게 직접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성경과 역사 그리고 상식을 가지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려고 한다.

어제 저녁 펜앤마이크 뉴스 기사들을 읽다가 이인호 교수님의 글을 발견하였다.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떳떳한 한국인으로 살아남으려면> 1936년생, 만 84세, 서울대 교수, 여성 최초 하버드 대 박사, 러시아 대사 역임, 긴 유학 생활 동안 ‘나는 한국의 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11년 동안 유학 생활을 버텼다. 애국자 중의 애국자

그 글에서 이인호 교수님은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마음의 아픔 표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국민들 스스로 위생 보전에 힘써야 한다. 도움의 손길들에 감사, 나가 다니기도 겁나는 우울한 상황에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트 슈피겔만의 “쥐” 라는 오래된 만화책을 다시 찾아 읽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히틀러 밑에서 신음하던 유대인 이야기,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바로 이 결론에 우리 온 국민이 회개해야 할 대목이 들어 있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들어 있어서 소개한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인간적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배려도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듯한 문제인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 일당에게 국가권력을 맡길 정도로 우리의 국민의식과 정치적 판단력이 해이해졌고, 돈이나 권력이면 양심이나 자존심, 그리고 이성이 모두 쉽게 마비될 정도로 향락과 금정만능주의에 빠져들었던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반성해 볼 일입니다.

조국 교수 같은 이중인격자를 지지하는 집단 시위가 벌어지는 나라가 세상이 또 있을까요? 산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 이고 살아남는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부끄럽지 않고, 국민으로 민족으로 떳떳하게 살다 죽으며 후대에 빛은 남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지금, 곧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집단적 전염병 감염의 위협뿐만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쉽게 매수당하는 순진한 일부 유권자들 덕분에 유지되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복고적 전체주의 체제가 정착하려 하는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신상을 털고 고발하며 구속 수감하는 나라에서 이른바 ‘문빠’들의 횡포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요구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100만을 넘어섰다는 것은 진정한 주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매우 고무적인 증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 정의와 변명을 함께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4년을 이 땅에서 살며 최고 선진국 미국 최고 대학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던 분이 우한 폐렴 사태를 보며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고 국민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잘 보여 주었다. 무슨 사심이 있겠는가? 이것을 정치 발언이라고 매도하지 말기 바란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향으로 나가면 국가는 어려움을 당한다.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면 국가는 망한다. 중국의 공산당 정권과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정권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버리고 공산주의 정권을 바라모며 중국몽을

꾸는 것, 이것이 국가의 어려움 즉 우한 폐렴 확산의 1차 원이다. 신천지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애꿎은 국민이 아니다. 시진핑 같은 공산주의자를 데려오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것이 1차 원인이다.

산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 이고 살아남는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부끄럼 없이, 국민으로 민족으로 떳떳하게 살다 죽으며 후대에 빛은 남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지금, 곧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집단적 전염병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쉽게 매수당하는 순진한 일부 유권자들 덕분에 유지되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복고적 전체주의 체제가 정착하려 하는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요?

목사로서 나는 이 말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충고라고 생각한다.

84년을 산 인생의 선배가 주는 진정어린 충고라고 생각한다.

이 말에 따라 온 국민이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지름길이다.

덩케르크와 금식

우리는 2017년에 개봉된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만여 명의 연합군을 영국 본토로 탈출시키는 과정을 담은 실화 영화다.

연합군은 영화의 배경인 덩케르크에 약 9일 동안 고립되어 있었다. 그곳에 고립된 연합군 병력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이 영국군 장병들, 그들의 탈출 과정을 그린 것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다.

1940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계속된 작전 끝에 338,226명의 영국군 및 프랑스군 장병들을 잉글랜드로 철수시킬 수 있었다. 만약 이들이 포위되어 섬멸 당했으면 영국은 더 이상 싸울 병력이 없었을 상황이다. 다행히 이들이 철수에 성공하여 영국은 훗날 반격을 할 수 있는 전력을 보존했으며, 처칠을 비롯한 영국인들은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반격을 위해 노력한다. 연합군은 이후 4년간 전 세계에서 독일과 싸움을 벌이다가 프랑스령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이 철수작전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극적인 상황 중 하나로 평가된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칠과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보았다.

그런데 그 영화는 어떻게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근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영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국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왕은 조지 6세이다. 그는 1936년부터 1952년까지 재위, 2차 세계대전 가장 위험한 때

조지 6세는 형인 에드워드 8세가 1년 만에 왕위를 버리고 사랑을 택하자 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다.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 등으로 인해 정신적 긴장감이 컸던 탓에 조지 6세는 유년기부터 유약하고 소심했다. 특히 말을 심하게 더듬는 언어 장애가 있어서 연설에 대한 공포가 있었으며 즉위 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킹스 스피치라는 유명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문제: 조지 6세의 즉위와 더불어 이듬해인 1937년 체임벌린 수상 체제가 출범했다. 체임벌린 수상은 국내 사회입법 문제에 적극적이었으며 타고난 협상가였다. 그는 대독일 유화정책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도 히틀러의 위협을 협상과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윈수의 말을 믿고 나라를 맡긴 유약한 자였다.

체임벌린 수상의 기대와는 달리 히틀러는 유화정책의 조약을 깨고 소련과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뒤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30만 명 이상의 영국군이 덩케르크에 갇혀서 몰살될 위험

국가의 이 큰 위기 앞에서 조지 6세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함을 느끼고 1940년 5월 26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금식 기도 요청

방송에 나가서 온 국민과 영연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물리쳐 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호소

왕과 전 내각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기다림
그리고 이를 위 철수작전 시작, 수많은 기적들이 생기며 34만 명이 무사히 탈출한
바로 이것이다.

왕과 백성이 한마음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시고
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처칠도 위대하고 백성도 위대하지만 왕이 위대하여 영국은
지금 살아남아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교파의 대표들은 우한 폐렴 퇴치를 위해 하루를 국가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발표하라.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요, 역사가 증명하는 국가 재앙 퇴치법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먼저 뜻하지 않게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
의료계 종사자, 방역 요원, 경찰, 질병 관리 본부 관계자 등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드린다.

우리의 인생길 앞날에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회개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https://www.cufi.org.uk/opinion-analysis/the-miracle-of-dunkirk-when-a-nation-prayed/>

(대하 7:13)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대하 7:14)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새 찬송가 515장, 1952년 6.25 동란 중에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석진영
여사가 지은 시, 박재훈 작사